

# “여성 네트워크, 당길 수 있는 끈이 되어야”

##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 출범식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월6일 경기도 수원 호 텔리츠에서 열린 2007 경기전문여성 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여성 네 트워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성을 다해 여성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 겠다”며 “고위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경기도정에 있어 남성 여성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가 되는 그러한 도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치를 살 때 도 어느 가게에서 김치를 잘 하는지 알아야 그 가게에서 산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끈을 잘 정비해서서 필요할 때 당길 수 있는 끈이 돼야 한다. 필요 할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데 늘 가 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주최



한 이날 행사에는 등 박숙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등 여성계 관련인사 100여명 이 참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설 대비 특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 의정부시,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의정부시는 우리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전반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방지를 위해 설 대비 특별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설 제수용품 및 성수품을 중점 관리해 차분하고 검소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물가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경찰서, 세무서 및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협조하여 물가합동 지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14개품목, 개인서비스요금 7개품목 등 설 성수품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2월14일 소비자단체



대표와 물가조사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 대비 물가안정 및 2007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서효원 경기제2행정부지사 취임

명예퇴직된 권두현 전 부지사에 이어 서효원 전 수원시 부시장이 1월25일 제8대 경기제2행정부지사에 취임했다.

의정부시 경기제2행 정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효원 신임 경기제2행정부지사는 직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전문가적 프로정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강조했다.

서 신임 부지사는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낙후됐으나 바꿔 말하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미래의 땅”이라며 “통일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발전축의 중심으로 떠오를 경기북부가 생애도시, 교육도시, 첨단 산업도시, 관광도시로 단계적으로 개발되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주인의 의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근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 부지사는 “급변하



는 세계 정세에 맞춰 경기북부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프로정신으로 톱풀 몸처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53년 경기 양주시에서 출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서 신임 부지사는 1981년 과학기술처 행정사 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

1997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행정자치부 주요 요직을 거친 서 신 임 부지사는 2000년 경기도로 전 임, 2002년 성남시 부시장과 부천시 부시장, 수원시 부시장 등을 역 임했다.

서 부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5년 근정포장을 수상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이화진 씨(46)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제31대 강동운 의정부교도소장 부임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에 적극 노력할 터”



지난 5일 제31대 의 정 부 교 도 소 장 으 로 강동운 (姜 棟 運, 58세) 전 충주구 치 소 장 이 부임했다.

강 소장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83년 교정간부 제22기로 임관하여 법무연수원 교수,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성동구치소 총무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성동구치소 부소 장을 거쳐 교정기관장으로 경주교 도소장, 충주구치소소장을 역임했다. 강동운 소장은 일선 교정기관을 거치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극대화

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기관운영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평소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주변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또한, 선진 교정행정에 대한 학 문탐구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정진 하여 1986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국 외석사학위를 받았다.

강 소장은 부인 김선혜(51세)여 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고, 취미는 독서와 여행이다.

강 소장은 기관운영 방침으로 “수 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사회의 전문 인력 참여와 교화프로그램 창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승남 기자 forme65@paran.com



# 2007년 한우리 가족봉사단 모집

## 2월1일부터 선착순 15가족 60명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온 가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보람 있는 생활을 위한 한우리 가족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민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정으로서 월1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는 15가족 60명을 모집 하게 되며 2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봉사활동은 양로원 또는

장애우 시설과 지체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정신 장애우들과 나들이, 사랑의 도배봉사, 시설 어르신과 송편 만들기, 환경정화활동,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여러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www.bong4.net)를 이용하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828-2108),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산재예방의식 고취 산업재해 감소

## 정우식품(주)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제1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2월6일 포천시 신석면 가재리 소재 정우식품(주)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서한욱 교육보전이사, 서울지방노동청 정용택 의정부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컨

설팅 서비스 협약체결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작업장 내 잠재 위험요인의 사전발굴로 재해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동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노·사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산 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산 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설' 보내세요!

## 50일간의 “사랑의 등불”후원행사 마쳐

의정부시 녹양동에서는 사랑나눔 릴레이 일환으로 50일간 추진한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행사 집수된 후원물품을 2월5일 후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작년12월7일 동사무소 민원실에 “사랑 나눔의 X-MAS트리”를 설치하고 50일간의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후원 행사를 벌여 왔다.

80여 개인·직장·단체들이 후원 행사에 참가했으며, 후원물품은 백미20kg 178포, 라면 59박스, 치약 20세트 등 총 972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접수되어 관내 어려운 저소득 가정 180여 가구에 백미와 라면 을 직접 전달했다.

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박모(67세, 남, 녹양동 거주)씨는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관심을 가져준 이웃에게 너무 감사하며 더 고마움을 전해 달라고 했다.

한편 유호석 녹양동장은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많은 주민들의 동참

을 유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X-MAS트리를 설치하고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행사를 50일간 실시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간의 따뜻한 감정을 교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 최대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훈훈한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돕기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는 1999년부터 매년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줌도리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밥 지을 때 쌀을 미리 한술씩 덜어내어 부뚜막의 단지에 모았던 찹미(筋米)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줌도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심실일반 모든 쌀과 금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사랑과 정성의 운동이다.

지난 한해 중앙새마을금고를 찾은 회원들로 하여금 사랑의 줌도리 운동에 동참 하도록 권유한 결과 총135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백미 1천558kg, 현금 226만4천514원이 접수되었다.

시청 및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 2월5일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의정부1.2.3동과 호원2동 불우이웃 및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했다. 한편,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지난

을 되살리기 위해 실시했으나 이전 일상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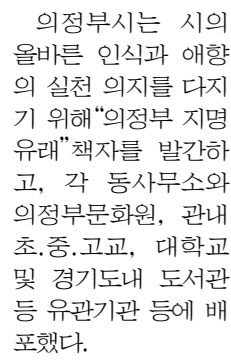
새마을금고 담당자인 최수자 부장은 줌도리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금고내에 비치되어 있는 쌀 봉투 및 저금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의정부지명유래” 發刊

## 지명유래 새롭게 조명 고장의 역사이해



의정부시는 시의 올바른 인식과 애향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의정부 지명 유래” 책자를 발간하고, 각 동사무소와 의정부문화원, 관내 초·중·고교, 대학교 및 경기도내 도서관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명유래 책자는 총 3권 216쪽 분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시의 고지도와 현재 시의 모습을 담은 지도는 물론 시와 각 동의 연혁과 유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져 있을뿐 아니라 남녀노소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제작되어 시의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의정부 지명유래의 발간은 의정부의 옛 지명의 유래를 새롭게

조명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리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는 이번 지명 유래집 발간을 계기로 후손들에게 시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조상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특별기고

# 보훈가족께 드리는 글



류 종 열 (의정부보훈지청장)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 저는 의정부시, 고양시, 가평군 등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국가보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의정부보훈지청장 류종열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한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독

고,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의정부보훈지청에서는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 체계 확립과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확산,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하며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훈가족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주민 여러분!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과거이자 현재며 또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존립 될 수 있었던 근본이며, 국

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사랑에 대한민국을 키워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야말로 진정한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업체에서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 며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훈가족 여러분께서도 보훈정책이 좋은 결실을 거두고,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